

# “강력한 리더십 필요” vs “견제장치 있어야”

### 국민의당 광주·전남 의원 설문 ‘단일지도체제’ 찬반 팽팽 박주선·천정배 “중론 따를것”...박지원 “말하기 부적절”

국민의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당 소속 의원들의 찬반 입장은 팽팽했다.

국민의당 전체 의원은 40명이고 지역구 의원은 27명이다. 이중 16명이 광주·전남 의원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당내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례대표 의원들도 광주·전남 출신이 많아 광주·전남 의원들의 분위기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24일까지 광주일보가 실시한 당 혁신안에 대한 광주·전남 의원들의 설문 조사 결과는 당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오는 26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도 격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당 혁신위는 지난 17일 현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권한과 책임 주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기존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던 최고위원회는 폐지토록 했다. 다음은 혁신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찬성  
▲천정배=혁신안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제가 대표선거에 출마하는 이해관계자여서 제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당내 중론에 따르겠다.  
▲주승용=장단점 있어 혼란스럽지만 지금 우리당 입장에서 선택하려면 단일(지도)체제가 낫지않을까.  
▲장병완=지시율이 바닥에 머무는 현 위기상황에서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요구된다. 최고위원들이 자리란 차지하면

서 지방선거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심상인 집단지도체제는 현재 우리당 상황에 맞지않다.

▲황주홍=아무래도 더 효과적인 당 정비와 속도감 있는 진로 설정이 장점이다.  
▲김경진=혁신을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윤영일=과도기적 단계에서 과단성 있고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반대  
▲김동철=혁신안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의사결정 전 견제장치가 필요하므로 분리 선출된 약강명의 최고위원을 뒤야한다.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들로는 견제가 안 된다.  
▲박준영=당대표, 최고위원 분리선거로 가야한다. (단일성)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맞다. 대표(경선)에 낙선한 사람은 최고위원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의원으로서 발언에 힘이 실린다.  
▲최경환=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선출해 최고위원 구성하는 단일성 집단지

도체제가 필요하다. 대표에게 주도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당내 계파와 부분을 대표하는 최고위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손금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것이 최선이다.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해야한다.  
▲정인화=대표를 따로 뽑아 대표성을 집단지도체제보다 강화하고 대신 약강명의 최고위원을 뽑아 협의성 또한 결집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필요하다.  
▲이용주=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분리 선거해야한다. 당세를 생각해서 최고위원을 많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무응답  
▲박주선=혁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주재할 입장이라 코멘트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의원들 중론에 따르겠다.  
▲박지원=직접 당대표로서 대선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잔여 임기 당대표 등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 /박지경·김형호 기자 jkpark@

## 국민의당 지도체제 개편 비대위-혁신위 진통

### 27일 중앙위서 룰 결정

국민의당의 8·27 전당대회를 한달여 앞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는 지도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진통을 빚었다.

혁신위는 최고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비대위와 당내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절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의당은 오는 27일 중앙위원회에서 지도체제와 전대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목표다.

비대위와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열린 논의를 벌였다.

비대위는 당대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취지의 혁신위 개편안을 토대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하던 기존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는 대안에 무게를 뒀다.

반면 혁신위는 당이 혁신을 통해 최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고위를 없애고 당 대표에게 권한을 몰아줘야 한다는 원안을 고수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혁신위의 제안 취지에 수긍하면서도 원안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당 대표 선거를 따로 떼어내 리더십을 강화하자는 대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원외 지역위원장들 사이에서도 분리선출안에 힘을 실는 의견이 다수다. /박지경기자 jkpark@



“잘 부탁드립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왼쪽)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檢 직접·특별 수사 기능 유지돼야”

### 공수처 신설도 유보 입장...검찰개혁 험난 예고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도 유보적 입장을 보여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 권한을 경찰에도 부여하는 방안에는 “더는

의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며, 일부는 직접수사·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국 영장제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다.

이러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한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찬성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에도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며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 후보자는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한 수사 방향 질의에 “수사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엄정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임동욱기자 tuim@

## 고개 숙인 與 투톱

### 추미애·우원식 ‘의결 정족수 미달’ 사과...기강확립 방안 고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의결 정족수 미달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여당으로서 추경 총력전을 벌였음에도 결정적인 순간 내부 표 단속에 실패한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된 데 따른 것으로, 원내 지도부는 회기 중 해외출장 금지를 비롯한 기강확립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의회 운영의 기본인 정족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질타를 받아야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꺼져 드린 점 정중히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우 원내대표도 “이유를 막론하고 여당 원내대표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밝혔다.

여당의 투톱이 동시에 사과를 하고 머리를 숙인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기강을 잡고 결속을 이끌어야 한다는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증세문제와 개혁과제 등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를 넘어야 하는 현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공 행진하는 지지율만 믿고 당내 결속이 안 되면 현안 처리에서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도 당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개별의원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당 전체의 기강을 세우는 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불참의원 2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불참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우면 징계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추경 처리가 예상과 달리 급진 전하면서 불참자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는 게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인식인 만큼 실제 징계를 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에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원내 지도부는 회기 중에는 해외출장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 박능후 “포용적 복지국가 근간 닦겠다”

###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문재인 정부 초기 복지정책을 이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 국가’를 국민이 원했던 ‘나리다운 나라’로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50여 년이 경제성장

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로 국가발전의 이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경제와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그간의 선(先) 성장·후(後)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 전략 수립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서훈 국정원장, 정 의장에 첫 ‘안보 브리핑’

### 文대통령 정보공유 강조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최근 북한의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 ‘안보브리핑’을 전했다.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안보브리핑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서 원장은 정 의장에게 ▲최근 북한 주요동향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요 ▲북한 사이버위협과 대비태세를 브리핑하고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는 여

아가 따로 없으므로, 안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보공유를 잘해 달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서 원장은 이날 심 부의장은 물론 박 주선 국회 부의장까지도 인사를 나누고 안보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 원장은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보위원회 회반 아니라, 국회의장님과 각 당 지도부에도 수시로 안보정세를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준공업지역 개발촉진지구 토지 523평 <b>감정가 311,000,000</b> <b>최저가 311,000,000</b>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b>매매가 520,000,000</b>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b>감정가 270,000,000</b> <b>최저가 216,000,000</b>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b>매매가 11억</b>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큰도로점 해안가 토지 1200평 <b>감정가 103,000,000</b> <b>최저가 103,000,000</b>	▶서구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b>매매가 23억</b>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b>매매가 17억</b>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상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b>매매가 38억</b>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b>매매가 17억</b>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b>매매가 38억</b> 조정가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b>매매가 평당 280만원</b>
	▶북구 신안동 추상복합상가 전남대정문인근 (1층, 2건) 건물 32평 <b>매매가 3억5천</b> (용자 2억5천, 보증금5천, 월143만원)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희관인근 토지 359평 <b>평당 40만원</b>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동산지락 토지 456평 <b>3억</b>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상무지구 중심상권 커피전문점 6층건물 1층 50평 <b>5천만원 월 300백 시설비 8천</b> 조정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완료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b>5억 5천만원</b>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b>4억</b>

##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 010-8559-8905 이용국 팀장